



Sunrise of Hyundai E&C construction sites

카타르 루사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 함께가는 2017, 현대건설의 희망이 움터 옵니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내를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짙은 어둠을 뚫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새벽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국내외 현장 임직원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현대건설 현장의 태양은 설 새 없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보신문>에서는 새해를 맞이해 임직원의 굵은 땀방울이 녹아 있는 국내외 현장의 멋진 일출 사진을 한데 모았습니다. ▶ 관련기사 12면

A new year of hope, the year of the rooster, has dawn. There are people who make their way through the darkness and start a new day at dawn in every corner of the globe. They are staff and executive members of Hyundai E&C working hard at our construction sites at home and abroad. Even at this moment, the sun is coming up over the construction sites of Hyundai E&C. To greet the New Year, Hyundai E&C Today would like to share wonderful pictures of new sunrise collected from our construction sites. ▶ Continued on page 12

## 현대건설, 베트남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캠퍼스 완공식... R&D 특강 펼쳐

현대건설이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사업의 일환으로 베트남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18일 베트남 현지에서 열린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2캠퍼스'의 개소식을 갖고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 CSV 사업의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현대건설 이석홍 연구개발본부장, 오명선 하노이지사장을 비롯해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한국국제협력단

(KOICA) 관계자, 해피무브 18기 대학생 봉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2월 현대자동차, KOICA, 플랜코리아 등과 함께 베트남에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제1캠퍼스'를 열고 건설사 최초로 건설 안전의식 개선에 나선 바 있다. 이번에 준공한 제2캠퍼스는 그 후속 프로젝트로 하노이 건설전문대학의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해 '배관·용접'에 특화된 대학으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제2캠퍼스는 현대건설이 독자적으로 완공한 첫 번째 성과다. 향후 이곳에서는 대형 플랜트, 전력 공사 시 필요한 실무 건설 심화 교육과 실습이 진행된다. 현대건설은 대형 크레인, 심화 용접기 등 20여 종의 신규 교보재를 지원

하는 것은 물론 현대건설기술교육원-베트남 동정석탄화력발전소 현장의 실무교육 노하우를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개소식 이튿날 오전에는 이석홍 연구개발본부장이 베트남 건설부 공무원과 건설부 산하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강의에 나섰다. 이 본부장은 'Sustainable R&D for Future Construction Industry'를 주제로 ▶회사 소개 및 공사 연혁 ▶베트남 현지 공사 사례 ▶스마트 시티 신기술 등 현대건설의 다양한 기술 노하우와 R&D 현황을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제2캠퍼스 준공으로 베트남 청소년들이 보다 양질의 교육환경에서 직업 기술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육을 통해 일자리는 물론 소득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Hyundai-KOICA Dream Center's new campus opens

Hyundai E&C sets out to support the dream of Vietnamese youth as part of its CSV (creating shared value) activities.

Korea's primary builder held a ceremony to celebrate the opening of its second campus of Hyundai-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Dream Center in Vietnam on January 18, which is the company's second CSV activity abroad following the first one in 2016.

Hyundai E&C opened its first center in cooperation with Hyundai Motor, KOICA and Plan Korea in February 2016, becoming Korea's first builder to set out to improve construction safety awareness in Vietnam. For the Hyundai-KOICA Dream Center project, the builder refurbished the old building of Hanoi Construction College into the new center specialized in practicing piping and welding skills. Courses and trainings will be provided with regards to practical construction works required for large plant and power projects. Hyundai E&C is planning to offer 20 kinds of training materials and aids including larger cranes and specialized welding machines as well as to share the expertise of Hyundai Technical Education Institute and the Mong Duong thermal power plant project in practical trainings.





# 위기가 곧 기회... 올해 경영 화두는 ‘스마트(S·M·A·R·T)’

2017년 시무식, 2일 계동 본사 사옥에서 열려

“총명하고 기민한 붉은 닭처럼 현대건설도 올해 모든 업무나 시스템에 있어 한 단계 더 스마트하고 똑똑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 회사는 지난 2일 서울 계동 본사 사옥에서 정수현 사장과 6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시무식을 갖고 정유년 새해의 힘찬 첫발을 내디뎠다.

신년사에서 정수현 사장은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국내외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속도(Speed) ▶효과적인 위기관리(Measurable) ▶달성 가능한 목표(Attainable)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현실화(Realize) ▶시간을



정수현 사장이 1월 조회에서 임직원에게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초월한 안전(Timeless)의 앞 철자를 딴 ‘SMART(스마트)’를 경영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 사장은 “경제 현안들을 비

롯해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공공·민간투자 사업들도 정체되거나 위축될 수 있어 현재로서는 방향조차 가능하기 어려

운 상황”이라며 “거센 풍파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워 스마트하게 나아간다면 외부의 환경도 분명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는 ▶우수 사원 ▶수익성 개선 유공 직원 및 현장 ▶4분기 무재해 현장의 표창장 수여에 이어 ▶기술사 취득 공로장 ▶변화와 혁신 리더스 대상 ▶승진 직원 사령장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우리 회사는 시무식에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기존의 9본부·11사업부·56실·193개 팀을 9본부·11사업부·56실·182개 팀으로 재편성했다.

## 2017 keyword of management: S·M·A·R·T

Our company held the New Year's kick-off meeting in the head office in Gye-dong, Seoul, on January 2. The first gathering in 2017 was attended by CEO Jung Soo-hyun and about 600 staff and executive members.

In his New Year's address, CEO Jung introduced SMART as a new keyword of business management in an aim to overcome economic conditions with ever growing uncertainty at home and abroad.

SMART is an acronym for Speed (speedy responses to market changes), Measurable (effective and measurable risk management), Attainable (achievable business objectives), Realize (realization of

visible achievement) and Timeless (timeless efforts for safety). "If we set up achievable goals and pursue them in a smart way, the continued gloomy external situations would change to our advantage," Jung stressed.

##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연구개발본부 견학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이 지난 12일 연구개발본부의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와 구조실험동 등 연구개발 실증시설을 견학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출범한 제3기 힐스테이트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 중 평소 건설 연구 분야에 관심있는 대학생 멘토와 고등학생 멘티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학생들은 스마트 건축 기술이 적용된 그린스마트 이노베이션센터와 건설 재료 및 내진·내풍에 대한 안정성을 평가하는 구조실험동 체험 외에도 이석훈 연구개발 본부장, 김형래 그린도시연구팀장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가졌다.



꿈키움 멘토링 봉사단이 연구개발본부 구조실험실을 둘러보고 있다.

## 능곡 6구역·부산 사직 1-6지구 연이어 수주

우리 회사가 연초부터 총 3166억원 규모의 능곡 6구역·부산 사직 1-6지구 사업을 연이어 따내며 쾌조의 출발을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현대건설컨소시엄은 능곡 6구역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 능곡 6구역은 지상 최고 45층, 13개 동, 아파트 2512가구와 오피스텔 184실로 구성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복합단지다.

또한 이튿날인 22일에는 부산 사직 1-6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사직 1-6지구는 우리 회사의 단독 시공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10개 동, 연면적 19만여㎡, 총 1131가구의 힐



능곡 6구역 조감도

스테이트 브랜드 아파트로 재탄생한다. 동래구에 들어서는 첫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다.

앞으로도 우리 회사는 국내 건설업계를 선도해 온 현대건설의 높은 신뢰도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발주되는 도시정비 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예정이다.

## 그림사 소식

### 현대자동차그룹, 협력사에 대금 1조80억원 조기 지급

현대자동차그룹이 설을 앞두고 협력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대금 1조80억원을 당초 지급일보다 앞당겨 설 연휴 전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현대자동차그룹의 납품대금 조기 지급은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건설 등 5개 회사에 부품 및 원자재, 소모품 등을 납품하는 4000여 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들 협력사는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예정된 지급일보다 최대 22일을 앞당겨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명절을 앞두고 상여금 등 각종 임금과 원부자재 대금 등 협력사들의 자금 소요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부담을 해소하는 데 납품대금 조기 지급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매년 설, 추석 등 명절 전 협력사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해 왔으며, 지난 추석 1조1789억원, 작년 설 1조11억원의 대금을 각각 조기 집행한 바 있다.

### 현대종합설계, 2017 World Architecture Top 100 선정

현대종합설계가 최근 영국의 건축전문 잡지 (Building Design)이 선정한 'World Architecture Top 100'에서 41위를 기록했다. 유럽 최고 권위의 건축 전문지인 (Building Design)은 전 세계 1400여 건축설계사를 대상으로 매출액, 인력규모 등을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현대종합설계는 지난해 43위에서 두 단계 오른 41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수준의 설계·디자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국내에서는 현대종합설계를 비롯해 6개사가 포함됐다.



**HYUNDAI MOTOR GROUP**

48km, 세계 최장 해상교량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내일의 기술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는 쿠웨이트시티와 북부 수비아 지역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 해상교량으로 1,100여개의 해상 말뚝은 고층빌딩 높이(60m)며,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변북로보다 긴 48km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48km

현대건설의 첨단 기술이 미래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장대교량 건설기술 초고강도 케이블 및 가설공법 / 교강도·내구성 콘크리트 / 내풍설계·해석기술  
스마트 건설기술 지능형 교통 시스템 / 제로에너지빌딩 / IoT 스마트홈 / BIM기반 디지털 건설

친환경 기술 해수 담수화 / 하·폐수처리 및 물 재이용 / 오염트램정화  
지속가능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바이오에너지 / 해양에너지(해상풍력/조류발전) / 태양열에너지

**HYUNDAI ENGINEERING & CONSTRUCTION**



# Cho Seong-jin captivates at recital

The sweeping sounds of Chopin's 24 Preludes were highlight of night

Jan 06

It's easy to assume that Korean star pianist Cho Seong-jin's performance at the Chopin Piano Competition in October 2015 was the best he could do since he's become the first Korean winner of the prestigious piano competition. But that would be a rash judgement. On the evening of January 4, during the second day of his first solo performance in Korea since the competition, the 23-year-old pianist proved there was still room left for him to develop.

His second show had the same program as the first, except for the Chopin piece played in the second part of the show, after the intermission. On the first day, he played Chopin's Ballade No. 1 to 4. The next day, he played the 24 Preludes. Cho started off with two very heavy pieces: A renowned 20th century composer Alban Berg's "Piano Sonata in B minor Op. 1," followed by Franz Schubert's "Piano Sonata No. 19 in C minor D. 958. Cho showed off his own unique style, sweeping the whole space with his energetic play.

"I may be wrong, but my interpretation is that it should be played all at once as a one whole piece. So I try to



## Who is Cho Seong-jin?

Cho Seong-jin, born in 1994, is Korea's first winner of the 17th International Fryderyk Chopin Piano Competition in October 2015. Since the competition, Cho has held recitals in Japan, the U.S., Russia and European countries. He released his first studio album recorded with the London Symphony Orchestra under the contract with the global record label Deutsche Grammophon. Currently he is a student of Michel Bér-off at the Paris Conservatoire.

play all 24 numbers at the same time in one breath, but with changing characteristics and colors for diversity."

Cho's Chopin Preludes was indeed colorful. He played it as if all 24 numbers have a link connecting one number to the next. Cho says that's how it was written in the first place. For

example, No. 3 that's in G major ends with a C note that sounds very crystal clear and light. No. 4 follows and starts with the same C note, but sounds very heavy as it's a "tragic prelude," Cho said. Why was it so distinctive and dramatic in Cho's performance? That seems to be his key talent.

After giving two encores Cho headed out to meet with his fans who were patiently waiting in line to get his autograph. According to the Lotte Foundation for Arts, Cho's two-day recital broke the venue's ticket sales records.

By KOREA JOONGANG DAILY

## 조성진 독주회, 관객을 사로잡다

명망 있는 국제 콩쿠르의 한국인 최초 우승자인 만큼 한국의 스타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2015년 10월 쇼팽 피아노 국제 콩쿠르에서 보여준 연주는 지금까지 그의 연주 중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선부른 판단인 듯싶다. 지난 1월 4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 열린 그의 첫 번째 독주회의 둘째 날, 23세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아직도 그에게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2부에서 연주한 쇼팽의 작품을 제외하면 두 날의 프로그램

은 같았다. 첫날에는 쇼팽의 발라드 1~4번을, 이튿날에는 24개의 전주곡을 연주했다.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소나타 Op. 1 b 단조와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제19번 c단조 D. 958 연주로 공연을 시작한 조성진은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과 넘치는 에너지로 무대를 휩쓸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전주곡을 하나의 작품처럼 한번에 연주해야 한다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24곡을 한 호흡으로 연주하면서도 다양성을 위해 곡의 성격과 컬

러를 달리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조성진의 쇼팽 전주곡은 실제로 다채로웠다. 그는 24개 전주곡이 하나의 곡처럼 이어지는 느낌으로 연주했다. 조성진은 이를 두고 원래부터 이렇게 쓰여진 작품이라고 말한다. Op. 28 3번 G장조는 아주 맑고 가벼운 '도'로 끝나지만 이어지는 Op. 28 4번은 '비극적 전주곡'이기 때문에 무거운 '도' 소리를 낸다고 그는 덧붙였다. 조성진의 연주가 이토록 뛰어나고 드라마틱한 이유는 그가 지닌 재능에 있지 않을까.

두 곡의 앙코르를 선사한 조성진은 사인을 받기 위해 오래도록 기다린 팬들에게 향했다. 롯데문화재단 측에 따르면 이틀에 걸친 조성진 독주회는 롯데콘서트홀의 유료 관객 기록을 갈아치웠다.

## Key expressions

**prelude** 서곡, 전주곡  
**captivate** ~의 마음을 사로잡다  
**crystal clear** 수정같이 맑은, 분명한

## Group News

### Kia Motors and Rafael Nadal back again at Australian Open 2017



Jan 16

January 16, 2017-As the major sponsor of Australian Open 2017, Kia Motors handed over a fleet of 110 official tournament vehicles to Tennis Australia during a ceremony in Melbourne attended by executives from Kia Motors Australia and Tennis Australia, as well as Kia's global brand ambassador and former Australian Open champion, Rafael Nadal. This year celebrates Kia's 16th consecutive sponsorship of the Australian Open, and Kia will roll out various on-and-off-line programs for tennis fans around the world.

This year's fleet of vehicles, including 50 Carnival MPVs, 40 Sorento CUVs and 20 Optima mid-size sedans, will ensure smooth and safe transportation for Australian Open 2017 by transporting players, officials and VIPs to and from matches and other activities throughout the year's first Grand Slam tournament. Tennis superstar and Kia global brand ambassador Rafael Nadal joined the ceremony as he handed over the ceremonial key to fleet to Tennis Australia.

Over the past 15 years, Kia's courtesy fleet has clocked up close to five million kilometers in tens of thousands of journeys carrying champions and journeymen alike in comfort and safety.

As part of the vehicle handover ceremony, Kia also introduced its new Stinger sports sedan, which just had its world premiere last week at the 2017 Detroit Auto Show. Also unveiled during the ceremony was a giant Kia tennis racquet which will be displayed throughout the tournament for fan interaction at Melbourne Park. Inspired by the theme 'Everyone has the Power to Surprise', Kia invites visitors and fans at Melbourne Park to write their names on the racquet strings. A TV commercial featuring Nadal and the giant racquet can be seen at the Kia Motors Worldwide on Youtube.

## Hyundai E&C Today's New Online Event: Tune in 2 U

# "To me, Hyundai E&C is \_\_\_\_\_!"

Starting in 2017, we run the online event "Tune in 2 U" every month, designed for our global employees of all nationalities, to get an understanding of how they feel about Hyundai E&C and Korean culture and give them a chance to feel closer to each other.

The first topic of our event on the 328th edition was "To me, Hyundai E&C is \_\_\_\_\_!" In regards to how our global employees think about Hyundai E&C, we received many e-mails and sincere feedbacks from participants who filled in the blank on the "Foreign board" of Groupware between January 12 and 19. We would like to thank all employees for sharing their passion and a sense of pride for their work and Hyundai E&C. Looking forward to hearing more opinions from you next time, we are going to introduce the best five comments.



**NIZAM MEERASAHIB,**  
Deputy General Manager  
(Qatar National Museum, Qatar)

"To me, Hyundai E&C is truly a home away from home with real blessings." I enjoy every moment of working in Hyundai E&C despite hectic responsibilities. Korean staff at all levels take due care of our issues the same way our guardians do at home. I feel my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lso I was blessed with having three kids over the last five years while working for Hyundai E&C, which is a good sign of my happy professional and personal life.

**MUHAMMAD MANSHA AZARD,**  
Manager (Mong Duong-1 1000MW Thermal Power Plant Project, Vietnam)

"To me, Hyundai E&C is a dream company to work and excel my professional career." Because Hyundai E&C is a globally reputed company managed professionally where processes are driven with great respect to performers irrespective of geographical and nationality barriers. It is a great privilege for me to work in the respected and ethical company like Hyundai E&C having high regards for core values.

**SUMIT. R. DAS, Manager**  
(New Delhi Office, India)

"To me, Hyundai E&C is a great company." Great companies challenge their employees to rise to the occasion, so that they can continually grow, acquire new skills and during the process help attain corporate objectives.

**WILL STUART PONCE, Staff**  
(Qatar National Museum, Qatar)

"To me, Hyundai E&C is maturing as a Global Company." Anyone who is working in Hyundai E&C can proudly say now that I am part of Hyundai E&C - a global company balancing its Korean culture as one.

**JACKIE SHAUN LI-JIN, General affairs staff**  
(MRT Downtown Line Stage 3 Contract, Singapore)

"To me, Hyundai E&C is my dreamland!" Because it's recognized as one of the best places to work in the country. Hyundai E&C is not only a leader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but also a leader in innovation and in pioneering new and emerging technology.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현대건설의 역사를 바로 알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재를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에서 글로벌 톱 건설사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대건설의 눈부신 발자취를  
<사보신문>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28  
2017/01/24/Tuesday

① 창립~1950년대

# 위대한시작, 대한민국 건설사의 막을 열다



1958년에 준공한 한강인도교 복구공사

### 현대토건사의 시작

자동차수리업에서 규모 있는 기업체로 자리 잡은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이 건설업에 뛰어든 건 1947년.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 안에 ‘현대토건사’라는 간판을 달면서부터다. 당시 직원이라고는 공업학교 교사 출신 기술자 한 명과 10여 명의 기능공이 전부였다.

그 무렵은 남한에 주둔하게 된 미군의 관계시설 긴급공사가 활기를 띠고 있던 터라 건설 관계 군소업체들이 수주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당장 큰 이익을 얻진 못했지만 신용과 경험으로 현대토건사는 서서히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1948년에 체결된 한·미 경제원조 협정으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자 현대토건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존의 현대자동차공업사와 합병해 1950년 1월 10일 현대건설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확장일로에 있던 모든 사업은 일시 중단된다. 정 회장의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 부산에서 피란생활을 하면서도 미8군 후방기지사령부의 공사를 따내는 한편 교통부 외자청과 외자보관청도 건설 및 철도보관 대행 계약을 했다. 또한 대대적으로 발주될 전후복구공사에 대비하기 위해 고급 기술자 확보에 힘을 기울였다.

### 열정과 신용이 만든 교량 복구공사

현대건설이 관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한 것은 한국전쟁 중 파괴된 교량 복구공사부터다. 1951년부터 상현교 복구공사를 시작으로 1953년까지

월천교·흥만교·호산교·논산대교·적포교·성북교 등의 공사를 맡았다. 건설장비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부족했다. 삼은 드럼통을 잘라 만들었고, 콘크리트는 일일이 손으로 비볐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현대건설은 1953년 고령교 복구공사를 맡게 된다. 고령교의 상부구조물은 모두 파괴된 상태였고 파괴된 상부 콘크리트 구조물이 물에 빠져 있어 작업에 애를 먹었다. 갖가지 노력과 연구 끝에 상부구조물은 레일 트러스를 제작해 시공했는데, 이는 시공 사례가 없던 신공법이었다.

불리한 계약조건과 장비 부족, 갑작스러운 자재값 폭등, 지형상의 악조건 등 최악의 상황과 리스크를 감수하고 현대건설은 1955년 5월 고령교 복구공사를 준공했다. 총 수주액의 40%가 넘는 적자를 본, 표면상으로는 손실이 큰 공사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아니었다. 이 공사를 통해 정부가 현대건설의 저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 이후 정부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도 유리한 여건으로 작용했다.

현대건설이 본격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내무부 지방국이 발주한 한강 인도교 복구공사를 하면서부터다. 복구 연장은 총 63.55m, 총 계약금 2억3000여만원으로 전후 단일 공사 중 최대 규모였다. 한강 인도교 공사는 파괴된 구교를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교를 가설하는 것보다 어려움이 컸다. 수중 콘크리트를 파일에 박을 때는 잠부수가 동원되기도

했다. 인도교는 요즘에는 잘 쓰이지 않는 타이피형으로 건설됐는데, 아치는 공작소에서 제작한 것을 현장에서 조립, 리베팅해 설치했다.

공사의 여러 난항을 극복하고 1958년 인도교를 성공적으로 준공한 현대건설은 내무부장관 표창장을 받으며 건설업체로서 위상을 높였다. 또한 교량 건설의 중요한 기술을 축적해 해외 교량 건설에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종합건설업체로 면모를 갖춰나가기

현대건설은 주한미군과의 인연을 시작으로 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미군 공사 가운데 가장 광복할 만한 공사는 1959년 착공한 인천 제1도크 복구공사다. 국내 최초로 국제 경쟁입찰 형식을 취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전쟁 때 파손된 도크 안에 부두를 신축하는 것은 물론, 수문을 수리하고 도크 안에 일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흙·모래·탄알 등을 준설하는 것이었다. 이 공사에서 현대건설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와 같은 신공법을 두루 접하고 적용했다. 대형 콘크리트물을 자를 때 쓰는 콘크리트 철도 처음 사용했다. 현대건설은 가급적 많은 직원이 이 공사현장을 거처도록 했다. 직원들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CM)와 국제계약실무까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혔다. 이는 국내 대표 건설회사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이를 통해 ‘현대토건사’라는 작은 간판을 단 건설회사에서 점차 종합건설업체로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

## Period from the foundation to the 1950s

The late honorary chairman Chung Ju-yung jumped into the construction business in 1947 when Hyundai Auto Service established by Chung gained solid footing in the market. The history of Hyundai E&C started when he put up a small sign reading “Hyundai Togun” within the office of Hyundai Auto Service. Although personnel, experience and even assets were not sufficient, Chung strongly believed that the more experience was gained in the construction field, the more knowhow could be acquired.

At that time, the US armed forces stationed in South Korea were eager to expedite the projects to construct relevant facilities. Smaller construction-related companies scrambled to win the projects, and Hyundai Togun joined the competition. Hyundai Togun, also known as Hyundai Civil Works Co., could gradually lay its business foundation in the market by gaining experience and trust from its clients. Hyundai Togun was renamed into Hyundai Construction and Engineering Co. on January 10, 1950 after merging Hyundai Auto Service and Hyundai Civil Works Co. together.

What put Hyundai E&C in the limelight was the project offered by the

Bureau of Local Administration o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to restore the Hangang Bridge (Picture 1). It was the single biggest post-Korean War construction project whose down payment was valued at about 230 million *hwan*. As the Hangang Bridge project was designed to rebuild the 63.55-meter bridge almost demolished due to the bombing during the Korean War, the project involved so many difficulties that divers were mobilized to inject concrete into the piles underw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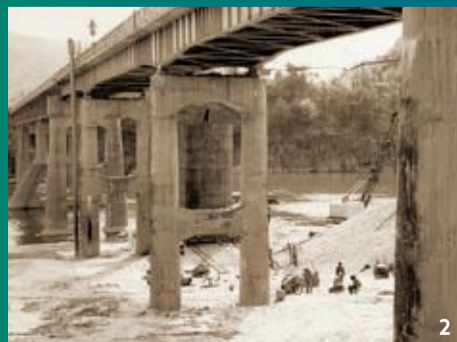
The Incheon Harbor dock restoration project was the country's first international competitive bid. The project awarded by Far East District was aimed to build a wharf in the dock destroyed during the war, repair gates and dredge soil, sand and bullets in order to maintain the water level at the required level within the dock. Hyundai E&C encouraged as many employees as possible to work at the construction site, and they strived to work on construction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ntract business, which served as a foundation for Hyundai E&C to grow into Korea's primary builder. The company with a small sign of Hyundai Togun gradually developed into a renowned EPC contractor.

### 1950년대 연혁

- 1946년 ○ 현대자동차공업사 설립
- 1947년 ○ 현대토건사 설립
- 1948년 ○ 미군 병사 및 부대 시설 신축 및 개수 공사 실시
- 1950년 ○ 현대건설주식회사 설립
- 1958년 ○ 한강인도교 복구공사 준공



1



2



3

1 전후 복구공사가 진행 중인 오산비행장의 모습. 2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사를 마무리해 신용을 얻은 고령교 공사. 3 주한미군 공사 계약 장면. 전후 미군 공사는 현대건설 도약의 발판이었다.



어둠만이 가득할 때 아침을 알리며 희망을 주는 닭은 어느 동물보다 영민하고 성실하다.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만난 닭띠 띠동갑 직원 3인도 바로 그런 인재가 아닐까. 나이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 우리 회사의 앞날을 밝히는 데 앞장서고 싶다는 마음만은 모두 같았다. 글=김보나 / 사진=이슬기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 328  
2017/01/24/Tuesday

닭띠 띠동갑 직원 3인

# “다른 듯 같은 우리, 아침 닭 울음처럼 희망찬 2017년 만들게요”

## 2017년, 새롭게 맞이한 삶의 터닝 포인트

주말과 겹쳐 유독 맛있게 지나간 2016년 연말과 2017년 새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날을 남다른 마음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 인프라환경엔지니어링실의 이정한 부장과 인사실 백인호 과장,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제 막 첫발을 내디딘 경영지원본부 박용현 신입사원이다. 나이도, 직급도 저마다 다른 이들의 공통점은 2017년 정유년에 자신의 해를 맞은 닭띠라는 것. 회사 앞 카페에 자리한 세 사람은 처음 만난 수줍음도 잠시, 새해 인사를 나누며 닭띠 해를 맞은 소감을 전했다.

이정한 부장은 1월 7일 새벽, 본사 임원과 현장소장 등 120명이 동행한 청계산 산행에서 새해 다짐을 마음에 새겼다. “해뜨기 전 산에 올라 해맞이를 하고, 수주 기원제와 안전 기원제도 드리며 ‘수주대박’ ‘임전무퇴’ ‘백전백승’ 등 비장한 결의를 다졌죠. 닭띠의 해라는 생각에 파이팅을 외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가더군요.” 이정한 부장이 올해 인프라환경사업본부에서 30건의 수주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며 “인력운영팀이 좀 바빠질 것 같긴 합니다만~” 하고 말을 덧붙이자 백인호 과장은 “저도 올해 더욱 바빠지고 싶다”며 말을 잇는다. “서른 이후로는 새해를 맞는 일에 큰 감흥이 없었는데, 올해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는 백인호 과장은 3월에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이제 곧 학부모가 된다. 여러모로 2017년은 시간이 지나 삶을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을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노련한 선배들과 달리 ‘각 잡힌’ 자세로 남다른 포부에 차 있는 박용현 사원은 지난 12월에 입사 합격 통보를 받은 이

후 하루하루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은 날들을 보냈다. “부모님께서 12월 31일과 1월 1일에 전국의 친척들을 경기도 군포의 본가로 초대해 파티를 여셨어요. 많은 응원을 받고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있어 긴장도 되지만 올해 선배들께 열심히 배워갈 예정입니다.”

어색함을 털어낸 세 명의 대화는 점점 무르익었다. 사원과 과장, 부장이 서로의 관심사와 고민을 묻고 답하며 한 때 겪었거나 앞으로 겪을 일들을 헤아려 보는 시간이었다. 오늘의 시간은 언젠가 동료와 선배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어줄 터이다. 기분 좋은 대화로 한 해를 시작하는 세 직원들의 눈빛이 기대와 설렘으로 반짝였다.

사원과 과장, 부장이  
나는 ‘따뜻한 말 한마디’,  
“공감과 배려로 토닥이며  
함께 건넵니다.”

왼쪽부터  
이정한 부장,  
백인호 과장,  
박용현 사원.



## 경력 20년차, 49세 베테랑 이정한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 박용현 사원(이하 박 사원) 20년 근속을 축하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회사만의 저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추진력이라고 봅니다. 남다른 도전 의식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런 특성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회사가 최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인호 과장(이하 백 과장) 요즘 부장님께서 많이 하시는 고민은 무엇인가요?

가장으로서의 고품격 인재 양성의 대학 진학이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일상에 대한 고민의 무게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리를 깨닫고 쓸데없는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지천명’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인가 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보다 지금 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 회사에서 성과를 잘 내고 가족들이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 사원 신입사원이 사랑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또 자기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누구에게나 먼저 다가가 인사하려고 조연하고 싶습니다. 경험상 인사를 잘하는 직원이 적응도 잘 하더군요. 또한 요즘 신입사원들은 모두 영어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제는 실무에서 사용할 영어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행 시 발주처와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 회사의 이익을 지키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필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 백 과장 올해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다짐은 무엇인가요?

인프라환경검찰설계지원팀 팀원들과 합심해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 푸근한 연말을 맞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회사의 안정은 물론 직원 개인과 직원 가족들의 행복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겠죠.

## 숙달된 업무 전문가, 37세 워킹맘 백인호 과장에게 물었습니다

☑ 이정한 부장(이하 이 부장)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은 무엇인가요?

저도 우선 우리 회사의 성과가 이어져 더 많은 직원이 다양한 해외 현장으로 향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챙기고 싶어요. 2~3주째 감기를 앓고 있는 데다 지난 12월 말 장기근속 휴가로 가족 모두가 여행을 다녀왔는데 온 가족이 아팠거든요. 제가 건강해야 가족들 건강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 사원 퇴근 후 시간 활용에 대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연애도, 취미생활도, 자기개발도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을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어요. 만약 가정이 생기고 아이도 낳으면 개인의 삶이 정말 없어지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해놓으면 정말 바빠질 때에 버티는 힘이 될 거예요.

☑ 이 부장 팀의 중간 관리자이자 업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과장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이 되어 보니 어려운 자리라는 걸 실감하게 돼요. 저희 위 세대는 시키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는데, 요즘 신입사원들은 개성이 무척 강하잖아요. 어떤 맥락에서,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과장들이 후배들에게 설명하고 조율할 때가 있더라고요. 사원이나 대리들의 성장과 고충을 팀장님께 귀뜸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후배에게는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선배가, 선배들에게는 업무에 보탬이 되는 선에서 직언을 할 수 있는 후배가 되고 싶어요.

☑ 박 사원 가장들도 물론 힘들지만 워킹맘으로서 힘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지만 통장에 백만원 이상 찍혀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기본 좋게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취입 턱도 내고, 좋은 옷도 한 벌 사면서 작은 사치를 부려보고 싶습니다.

## 따끈따끈한 ‘뉴비’, 25세 신입사원 박용현 사원에게 물었습니다

☑ 백 과장 요즘 신입사원들은 정말 대단한 역량을 갖추고 있던데요, 자기개발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저보다 더 많은 능력을 지닌 신입사원들이 많아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말씀드리자면 저는 얼른 독립하고 싶어서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자기개발의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영어는 원어민처럼 잘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제까지는 ‘미드’ 시청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웃음).

☑ 이 부장 사원, 대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박용현 사원은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히려 입사 2년차에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여쭙보고 싶었는데요(웃음). 가치관이 다양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해외 근무를 자청하는 동기들이 많아서 저도 놀랐는데, 결혼은 살짝 미루고 커리어 개발에 몰두하려는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 과장 신입사원 교육을 받으며 인상 깊었던 점이나 회사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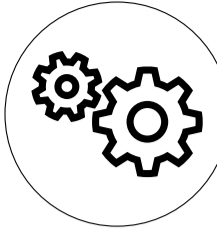
H-Racing이라는 서킷 제작 프로젝트가 인상적이었습니다. 17사번이 우리 회사의 지난 7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70년을 만들어 나간다는 의미에서 1770을 형상화한 RC가 트랙을 만들었는데요. 우리 회사의 역사와 규모, 업적을 되새기며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이 부장 이제 진정한 사회인이 됐는데, 학생 때 하지 못했던 일 중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나요?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지만 통장에 백만원 이상 찍혀 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께 기본 좋게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취입 턱도 내고, 좋은 옷도 한 벌 사면서 작은 사치를 부려보고 싶습니다.







**현장탐방** 싱가포르 주류 해저 유류 비축기지(JRC1)

싱가포르 서남단 주류섬 인근의 반얀 해역, 바다 130m 아래에 영화 <반지의 제왕>에나 나올 법한 웅장한 터널이 나 있다.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다섯 척과 맞먹는 규모다. 이곳은 우리 회사가 동남아 최초로 짓고 있는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 공사 현장'이다. 글=박현희



**해저 130m 아래... 초대형 유류 저장동굴  
지하공간개발의 새 역사 쓰다**



유류 출하 시 속도를 올리기 위한 가압(부스터) 펌프(위), 유류 입출하를 위한 배관 라인.

미국 휴스턴, 유럽 ARA 지역(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과 더불어 세계 3대 오일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 국토 면적이 697km<sup>2</sup>에 불과한 이 나라는 늘어나는 유향학 제품 비축 요구량을 감당하기 위해 해저 지하공간 개발에 도전했다. 동남아시아 최초의 해저 유류 비축기지 공사는 그렇게 시작됐다.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 공사는 주류섬 남쪽 반얀(Banyan)만 지하 130m 알반에 1800만 배럴 용량의 유류 저장시설 5기를 건설하고, 지상에는 수출입량과 운용에 필요한 기계·전기·계장 시설을 설계·시공하는 프로젝트다. 우리 회사는 치열한 입찰 경쟁 속에서 1년 이상의 기술 검토 과정을 거쳐 2009년 5월 7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 공사를 탄지로 수주했다. 국내외에서 수행한 수많은 터널·굴착 공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발주처와의 기술 협의를 성공적으로 끝낸 결과다.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 공사는 1·2단계로 나뉘어 진행됐다. 1단계는 크게 입출하 부두와 해저 유류 비축기지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2014년 상반기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이다. 2단계는 해저 유류 비축기지 3기를 시공하는 공사로 현재(1월 24일) 99.3%의 공정을 보이고 순항 중이다. 준공 예정일은 2017년 4월.

**해수와 의사투 - 첨단 건설공법 적용**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 공사는

매립지로 조성된 지상 구간에 원유의 송출하와 관련된 배관, 밸브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해저에는 원유 비축과 관련된 모든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지상에서 해저 유류기까지는 직경 약 26m, 길이 130m의 수직구(Shaft) 2개로 연결된다. 지하 약 100m·130m 두 개의 층에는 여러 개의 공사-운

와 구조팀을 위한 시설 등을 갖춰야 했다. 이러한 형태의 저장 동굴은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다.

일반 도로의 터널이나 광산과 달리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 공사에는 최첨단 건설공법이 필요했다. 해저 암반을 뚫을 때 최고 난제는 곳곳에서 쏟아지는 바닷물을 막는 일이었다. 우리 회사는 지하수 유입을 막기 위해 암

문, 현장은 이를 위해 '인공수막(Water Curtain)' 공법을 수행했다. 저장탱크 마다 30m 떨어진 곳에 수평으로 작은 터널(폭 5m, 높이 6m)을 만들고, 이곳에서 다시 10m마다 지름 10cm의 구멍을 수직으로 70m까지 뚫어 바닷물을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 공법을 사용하면 저장동굴 주위로 수압이 더해져 유

**동남아시아 최초의 해저 유류 비축기지 공사  
초고도화된 저장동굴...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어  
술한 난제를 첨단 공법으로 극복해**

영 터널이 뚫려 있고, 그 안에 5개의 해저 운영실(Maintenance Chamber)과 저장 동굴이 들어가 있다. 또한 저장 동굴마다 다른 유종을 저장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기본 계획에 따라 개미집같이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설계돼 있다. 특히 기존의 다른 터널은 완공 후 지하에 운영 인력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싱가포르 주류 유류 비축기지는 해저에 운영실이 함께 있기 때문에 훨씬 고도화된 소방·환기 설비

반에 구멍을 뚫어 시멘트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그라우팅(Grouting) 작업을 진행했다. 지하수가 많이 용출되는 막장에는 약 100㎡에 200개가 넘는 구멍을 뚫어 20㎡ 이상의 시멘트를 2~3차례 반복해 채워 넣기도 했다.

해저 유류기에서는 석유증기(Oil Vapour), 기름이 증발하면서 생긴 기체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석유증기가 유출되면 직원들이 질식할 뿐만 아니라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지기 때

니라 석유증기를 가둘 수 있다.

**매일 회의하며 술한 난제 이겨내**  
최고난도 공사인 만큼 공정-안전 관리도 철저했다. 가로·세로 약 12m 안의 운영 터널에서 토목작업과 기전작업이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공종별 작업 간섭과 공정 지연이 예상됐다. 우리 회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매일 회의를 열었다. 시간별 작업 일정과 우선순위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주



1 저장동굴 내부 전경. 2 아시아 오일 허브로서 바빠질 입출하 부두. 3 저장동굴 내부 운영을 위한 단계 구간. 4 배관 시공 당시 사진.

요 지점마다 현장 특별팀을 배치해 작업 간섭 및 품질 문제를 해결했다.

또한 안전사고 및 재해 예방을 위해 목요일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공구장 회의를 통해 논의했다.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는 'RUI(Report Unwanted Incident, 위험요인 개선 건의) 제도'를 운영해 매달 안전 캠페인 시 안전 우수 근로자 및 RUI 우수 근로자를 선정해 표창했다. 이러한 현장의 노력은 '무재해(LTI, Loss Time Injury) 1150만 시간'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술한 난제를 뚫고 오는 4월 그 위용을 드러낼 싱가포르 주류 해저 유류 비축기지. 국내외에서 미개척 분야로 여겨지는 지하 복합 구조물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만큼 이 분야의 수주 소식이 각국에서 전해져 오기를 기대해 본다.



지하 터널부와 지상 부를 연결해 주는 수직구(Access Shaft) 공사 모습.

**INTERVIEW**

**“남다른 팀워크? 사랑 덕분이죠!”**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이규재 현장소장(이하 현장소장) 1991년에 입사해 분사 근무 2년, 국내 2개 현장 5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18년은 해외 4개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국내의 6개 현장 모두 터널공사를 포함하고 있던데요. 우리 현장에 몸담은 지는 오는 4월이면 만 8년이 됩니다. 이중태 부장대우(이하 이 부대) 배관시공 책임자로서 배에서 들어오는 기름을 저장동굴로 수송하는 배관 라인 설치와 기타 운영에 필요한 라인들을 설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 인터뷰에 참여한 직원 모두 2011년부터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영수 대리는 배관·철골·기계 관련 품질관리를, 최병기 사원은 터널 굴착과 구조물 시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Alberto Q. Aguiar(이하 Alberto 과장)** 안녕하세요. I am Mr. Alberto Q. Aguiar working at Jurong Rock Cavern Project in Singapore as Senior Planning Engineer. My job is to undertake tendering, sourcing and mobilization of subcontractors and rental equipment suppliers, and manpower supply for the project in the Project Control and Planning Department. I usually prepare tender documents for subcontracting works, and at the same time manage and administer the different subcontractors.

**Q 동남아 최초의 해저 유류 비축기지 공사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현장소장 2012년 터널 굴착공사를 진행하던 협력업체가 어려운 공사 여건과 자금 수지 문제로 급작스럽게 철수했습니다. 갑자기 작업으로 전환되다 보니 제대로 진공도 못 갖춘 채 공사를 해야 했죠. 전 직원의 수고로 다행히 하도급 수행 당시보다 생산성이 증가했고, 단위 생산량 대비 투입금액도 절감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영수 대리(이하 이 대리) 2015년에는 발주처와 공기 연장 간접비 클레임 협상을 성공적으로 타결했습니다.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공기 지연도 일부 있는 상태에서 계약 금액의 약 5%에 해당하는 4800만 싱가포르달러(SGD)를 일시 수령한 거죠. 공사 중 이런 거액의 간접비용 보상금 지금은 발주처 역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난공사임에도 적극적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우리 직원들의 모습에 발주처도 감명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Q 인터뷰에 참여한 Alberto 과장과의 인연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현장소장 Alberto 과장은 근 30년을 현대건설에서만 근무했을 정도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협력업체 선정, 계약, 기성관리 등 대내공무 업무를 주로 하는데요, 탁월한 영문 서류 작업 능력이 Alberto의 장점이죠. 무엇보다 현대건설을 좋아해 술한 외부의 스카우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 회사 현장에서 한국인 직원과 필름며 맞 즐기고 있습니다.

최병기 사원(이하 최 사원) 우리 현장은 한국인 직원과 외국인 직원 모두 '식구'라는 의미로 같은 식당

싱가포르 주류 해저 유류 비축기지 현장은 최고난도 공사인 만큼 어려움이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남다른 단결력으로 술한 난제를 해결한 현장 직원들과의 열정 인터뷰.

에서 밥을 먹습니다. 소장님께서 팀별 회식, 워크숍, 운동경기 등에도 외국인 직원을 반드시 참석 시키죠. 함께 일하고, 자주 살을 부대끼다 보니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화합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Alberto 과장 I admire these people who have been instrumental in upbringing my knowledge in construction, work ethics and, most of all, the vast experience which they contributed to in my life. I treat them dearly not only as friends but also as my family.

**Q 올 4월 준공을 앞둔 현장 직원들의 각오 한마디.**

이대리 "Do it right! Safety first! Quality first!" 끝이 보이지 않던 공사가 어느덧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설감이 나지 않지만, 조금 더 힘내서 최고의 결과물을 내놓겠습니다. Alberto 과장 Let us have a toast for this success, as we always said in the dinner

이중태 부장대우, 이규재 현장소장, Alberto 과장 최병기 사원, 이영수 대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The Jurong Rock Cavern Project in Singapore**

The Jurong Rock Cavern (JRC) Project aims to build five oil storage caverns for about 18 million barrels of liquid crude oil located at a depth of 130 meters beneath Banyan Basin on Jurong Island and to design and construct machinery, electricity and instrumentation facilities required for the operation of import and export terminals. Hyundai E&C received the project valued at about 760 million dollars on a turn-key basis in May 2009.

The first phase, intended to build a dock for receipt and dispatch and two undersea oil storage facilities, was completed in 2014 and is under commercial operation. As of January 24, 99.3 percent of the second phase of building three rock cavern facilities

for oil storage has been finished. The biggest challenge in drilling the undersea bedrock was to block the flowing seawater. Our company utilized the grouting method

by injecting sealing materials like cement into the holes on the bedrock under pressure. In general, oil vapor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concerns in underground oil storage facilities. Oil vapor is highly likely to cause suffocation of workers and large explosion accidents. For our company to deal with this, a water curtain system was adopted.

Daily meeting held to overcome challenges Our company held a meeting on a daily basis to improve efficiency. Safety inspection was conducted every Thursday to prevent safety-related accidents and disasters, and if faults were found by the safe-



Vapor Recovery Unit.

ty inspection, a team leader meeting was held every Saturday to discuss and find the solutions. To raise the safety awareness of our workers, our company carried out the RUI (report unwanted incident) system. Thanks to all these efforts, we could reach 11.5-million man hours without LTI (loss time injury).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새로 여겨 왔다. 닭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서곡으로 비유되기도 하고, 민간에서는 밤을 떠돌던 귀신들을 물리치는 소리로 믿기도 했다.  
글=하도겸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 328  
2017/01/24/Tuesday



새날을 밝히는 새 그림: 서공임 민화展  
롯데갤러리 영등포점(~2월 5일)  
롯데갤러리 안양점(2월 8일~3월 5일)

## 정유년, '복닥福닭'하게 풀어본 인문학

닭은 12지의 열 번째 동물로 계유(癸酉), 을유(乙酉), 정유(丁酉), 기유(己酉), 신유(辛酉) 등으로 순행하며,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 달(月)로는 음력 8월, 방향으로는 서(西)에 해당한다. 정유년 새해는 음력으로 설날인 1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신화나 설화에서 닭 울음소리는 천지개벽이나 국부(國父)의 탄생을 알리는 태초의 개벽 같은 소리였다. 제주도 무속 신화 천지황 본풀이나 신라의 김알지 신화 등에 나오는 닭의 울음소리가 그것이다. 왕실 내 근친혼으로 일부 모권제적인 모습을 보이는 신라 사회는 닭의 생태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래서 혁거세 열성신화나 김알지 설화의 모티브로 적극 채용된 것은 아닐까.

### 도깨비 쫓는 빛의 전령 닭

동틀 무렵 장닭은 뿔을 길게 세 번 이상 치고 꼬리를 흔들면서 새벽을 알리는 시보(時報)의 역할을 완수한다. 그래서 닭은 우리 조상들로부터 오덕 가운데 특히 신(信)의 덕을 갖춘 가족으로 사랑받았다. 삼국지에 나오는 용맹무쌍한 관우가 재복과 상업의 신이 된 것도 그가 보여준 '신의(信義)' 때문이었다. 닭은 흔히 다섯 가지 덕(德)을 지녔다고 칭송된다. 닭의 볏(冠)은 문(文), 발톱은 무(武)

를 나타내며, 적과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 모이를 보고 꼭꼭거려 무리를 부르는 것은 인(仁), 때 맞춰 새벽을 알리는 것은 신(信)이라 했다.

닭이 울면 긴 밤이 끝나고 아침이 찾아온다. 무명이 사라지고 희망찬 해가 오는 가운데 닭이 자리 잡고 있다. 빛을 싫어하는 도깨비나 귀신은 태양을 부르는 닭이 무섭다. 그걸 아는 우리 조상들은 닭 그림을 벽에 붙여 잡귀를 물리치려고 했다. 무속에서 닭 피를 뿌리는 것도 그런 연유다. 『동국세시기』에 보면 새해에 각 가정에서는 닭이나 호랑이, 용을 그린 세화를 벽에 붙여 액을 쫓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또 정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방법 중 '닭 울음 점'이 있다. 대보름달 꼭두새벽에 첫 닭이 울면 울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옛 사람들은 빛의 전령인 닭이 제때 울지 않거나 울 때가 아닌데 울면 불길하다고 여겼다. 그래서 닭이 초저녁에 울면 재수가 없고, 한밤중에 울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며, 해가 진 후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 입신출세를 원한다면 서재에 닭 그림을!

축귀와 액 막음의 상징이 된 닭 그림에 자식 욕심이 많은 우리 조상들은 병아리

를 넣어 그리곤 했다. 변상벽, 신유복, 장승업 등 조선시대 화가들은 부귀공명과 입신출세, 자손의 번창을 기원하기 위해 닭과 함께 병아리, 맨드라미, 모란을 함께 넣어 그렸다. 맨드라미는 닭 볏과 모습이 비슷해 관 위에 관 하나를 더한다는 뜻으로 최고의 입신출세를 의미했다. 부귀의 상징인 모란을 공명의 상징인 수탉과 함께 그린 그림은 부귀공명을 뜻했다. 어미 닭이 많은 병아리를 거느리고 있는 모습은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 아들딸을 많이 낳아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수복강령의 소망이었다.

### 장모님이 수탉 대신 씨암탉을 잡는 이유는?

닭이 가장 두려워하는 시간은 아마도 삼복더위와 새싹이 왔을 때일 것이다. 닭은 피부, 털, 입, 뺨 등을 통해 체온을 조절한다. 온몸이 깃털로 뒤덮여 있음에도 여름나기에 성공하는 닭을 우리 조상들이 놓칠 리 없다. 특히 몸을 보신해야 하는 한여름날 백년손님인 사위가 오는데 어느 장모가 씨암탉을 아낄 것인가. 농촌에서 씨암탉을 잡는 일은 병아리를 갈 수 있는 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집안의 중요한 자원 하나를 버린다는 의미다. 그 때문에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것은 그 집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 옛날에는 씨암탉이 낳은 계란도 귀히 여겨 친척의 생일이나 결혼, 환갑 때 짚으로 달걀 꾸러미를 싸서 부조를 했다. 닭은 하루에 알을 하나 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모아두었다가 10개가 되면 한 꾸러미를 만들었으니, 그 정성 또한 대단한 것이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수탉은 잡지 않았다는 것. 하루 50회 교미하는 카사노바이지만 새벽의 시작을 알려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기에 어찌할 수 없었나 보다. '날개를 먹으면 바람피운다'는 말처럼 '수탉을 먹으면 카사노바가 될까 봐 염려했다'는 해학적인 설명도 가능하다. 암탉이 생명의 위협을 크게 느낀 탓인지 『조선왕조실록』에는 세종, 중종, 명종, 선조, 현종에 여러 번 암탉이 변해 수탉이 됐다는 기록이 나온다.

결혼식 초례상에도 닭은 반드시 필요했다. 신랑·신부가 초례상을 가운데 두고 마주서서 백년가약을 맺을 때, 닭은 청홍 보자기로 싸서 상 위에 놓거나 동자가 안고 옆에서 있었다. 즉 닭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하는 것이다.

우리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애환을 함께 해 온 닭은 이렇듯 조상들에게 무척이나 특별한 존재였다. 지금도 닭은 체중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서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젊은이들에게는 '치맥'으로 인기다. 그런 닭들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로 인해 살처분되고 있으며, 계란 역시 금란(金卵)이 됐다. 설날을 맞이해 그동안 닭의 집단을 사육을 방관하고 조장한 우리의 탐욕을 살피고 한 번쯤 '반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닭 그림을 완상(玩賞)했던 옛 선비들처럼 새해 첫날부터 닭의 소중함을 살핀다면 복은 저절로 많이 들어올 것이다.



1,2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했던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맞아' 전시 속 닭 회화들. 3 서공임 민화展 '사랑의 세레나데', 2016, 한지에 수간본 채, 50x70

서양에선 수호신...  
동양에선 고통의 구제자

### 세계 속 닭 이야기

닭은 종교를 초월해 동서고금 어디에나 있었다. 서양에서 닭은 악마를 물리치는 수호신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신성한 새라고 여겨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군신 알레사나 지혜의 여신 아테네(미네르바), 의신 아스크레피오스에게 바쳐지기도 했다. 사령관 테미스토크레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의기소침한 그리스 군에 승리에 목숨을 거는 닭의 용기를 격찬했다. 그리스에서는 투계가 성행해 카를대제도 나라를 분할할 때에 투계로 결정했다. 로마의 집정관은 닭이 먹이 먹는 모습을 보고 로마에 닥쳐올 행복과 불행이 점쳤다고 한다. 알렉산더대왕은 닭을 사육하는 신관(新官)을 전장의 참모로 삼았다. 대혁명 이후 프랑스는 수탉을 정의·용기·평등의 상징으로 삼았고, 아프리카 일부 부족은 흰 수탉을 지팡이 위에 얹어 권위를 과시하기도 했다.

불교에서 닭은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는 군다리보살의 화신이며 악사여래를 수호하는 12나한 가운데 진달라라는 호법신장으로 등장한다. 기독교 성경에 보면 예수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고 예언한다. 그래서 그런지 예루살렘 시온산 남동쪽 언덕에 위치한 '베드로 회개 기념 성당(St. Peter in Gallicantu)'을 비롯해 유럽의 성당 지붕에는 닭 모양 조각이 적지 않게 보인다. 하느님께서 주신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닭이지만, 베드로처럼 잘못을 한 이는 뉘우치라는 회개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죄를 스스로의 목숨으로 용서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인도 동북부가 시족들은 물론 유대교인들도 '카파롯(Kapparot)'이라는 의식을 통해 사람 대신 닭을 제물로 바쳤다.





# 아빠의 사랑 베풀기 임무

필자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는 편이어서 아이들이 일어나기 전에 집을 나선다. 초등학교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깨어 있을 때는 마냥 개구쟁이지만 잠든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의 모습이다. 오래전부터 자고 있는 아이들 볼에 입을 맞추고 나온다. 한 번은 아이 볼에 입을 맞추며 “아빠 다녀올게”라고 속삭인 적이 있다. 그런데 큰아이가 “네”라며 아주 작은 소리로 대답하는 것이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이들 볼에 입을 맞추게 된 건 그때부터였다. 자고 있지만 아빠의 사랑을 분명 느낀다고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출근해 업무를 하다가도 등교시간이 되면 아이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고 와 ♥♥♥♥” 잠시 후면 아이들에게서 문자가 온다. 등교하느라 바쁘지 보통 ‘네’라는 말만 보내오지만, 나는 그 문자메시지에 또 하트 이모티콘으로 답한다. 퇴근시간이 다가오면 아이들에게서 “아빠 오늘 일찍 오세요?”라는 문자가 온다. 그때부터 마음은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한다. 누군가에게 기다림의 대상이 된다는 건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일이다. 내게는 아이들이 일상의 행복 그 자체다.

사실 직장인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다. 말린 업무를 처리하느라 퇴근이 늦는 날에는 아이들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간다. 이런 일상이 반복되는 직장인 아빠가 많다. 그러나 평소 아이들과 시간을 보

낸다는 건 여건상 무척 힘든 일이다. 그래서 보통은 주말에 시간을 내려고 마음먹는다. 그런데 그 결심은 주말이 되면 여지없이 무너진다. 한 주간 쌓인 피로가 주말이면 한꺼번에 몰려오기 때문이다. 주말을 잠으로 보낸 직장인 아빠는 월요일에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또다시 반성과 지지 못할(?) 결심을 한다.

쌓인 피로를 한번에 풀려고 하는 것처럼 주말에 몰아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매일 집중해서 놀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필자의 경우에는 매일 아이들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하루 10분 책 읽어주기’를 시작했다. 방법은 간단하다. 아이들이 잠자리에 들 때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는 것이다. 처음엔 10분을 정해놓고 읽으

지만, 나중에는 시간이 상관없이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마무리하고, 다음 날 이어서 읽어 준다. 대부분의 아이는 책을 읽어 준다고 하면 무척 좋아한다.

### 하루 10분 육아, ‘아빠 되기’의 시작

2017년 신년특집으로 방송된 SBS스페셜 〈아빠의 전쟁〉은 위기에 빠진 직장인 아빠들에 대해 다룬다. 방송에서 한 아빠가 딸에게 묻는다. “너는 아빠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러자 딸이 답한다. “그냥 아빠 생각을 잘 안 해.” 아빠가 다시 묻는다. “그러니까 얘기를 해 봐.” 딸이 짜증이 섞인 말투로 다시 대답한다. “아빠 생각을 잘 안 한다니까!” 〈아빠의 전쟁〉을 보면서 많은 직장인 아빠가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고 느꼈는지 모른다. 방송이 말하는 핵심은 단 한 가지.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는 아빠들은 ‘아빠 되

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2015년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들이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6분. 책을 읽어 주거나 놀면서 교감하는 시간은 3분 정도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아이가 20세가 될 때까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3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20년 동안 30일 정도만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진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까? 아이들이 자라면서 차츰 아빠와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아빠의 평소 존재감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다. 퇴근 후 집으로 들어설 때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아이들 반응이다. ① 환호성을 지르며 달려와 안긴다. ② 건성으로 인사만 건넨다. ③ 쳐다보지도 않고 무시한다. ④ 자리를 피한다.

①과 같이 아빠를 반기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빠의 존재감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고 할 수 있다. 만일 ③이나 ④처럼 아빠가 왔는데도 아이들이 관심이 없거나 슬슬 피한다면 이미 아이들 마음속에 아빠의 자리는 사라지고 없다.

물론 직장인 아빠들이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아이들과 놀아주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단 10분이라도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함께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내 매일 실천한다면 상황은 바뀔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육아

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다. 관심을 갖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큰 격차가 있다. 관심만 있다면 자주 안아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은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할 수 있다.

조정래 작가의 『꽃도 꽃이다』에는 이런 문구가 나온다. “자식 가진 이 세상의 남자들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똑같이 주어져 있어. 하나는 가장으로서의 밥벌이 임무고, 다른 하나는 애비로서의 사랑 베풀기 임무야.” 직장인 아빠들은 오직 가장으로서의 밥벌이 임무를 수행하느라 애비로서의 사랑 베풀기 임무에 소홀했다. 단순히 놀아주거나 같이 있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사랑 베풀기 임무’라는 것이다. 그러니 아이들이 아빠의 애정을 듬뿍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오늘부터 계획해 보자. 단 10분이면 된다.

남자들에게는 밥벌이 임무와 사랑 베풀기 임무가 주어져 있어... 사소한 활동이라도 매일 10분씩 함께 한다면 아이들은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안성진

『하루 10분 아빠 육아』 저자

※ 본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문화책갈피

여행을 떠나자니 부담스럽고, 집에만 있기에 답답하다면 영화관 나들이가 제격. 설 연휴를 맞이해 자녀와 함께 보면 좋을 영화가 개봉 혹은 재개봉한다.

# 자녀와 함께 이 영화 어때요?



유치원생 추천!  
**키코리키: 황금모자의 비밀**

감독 테니스 체르노프 등급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75분 개봉 1월 25일

무한 변신이 가능한 신비의 ‘황금모자’를 몰래 훔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로 변신하려고 했던 소심양 ‘릴리’. 하지만 실수로 모자의 버튼이 눌러지면서 작디작은 애벌레와 몸이 바뀌게 되고, 상상가상 모자까지 잃어버리면서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된다. 러시아 역사상 가장 성공한 애니메이션이자 국내에서는 ‘러시아의 뽀로로’로 알려진 작품.



초등학교 추천!

**블랙**

감독 산제이 릴라 반살리 등급 전체 관람가  
러닝타임 124분 재개봉 1월 18일

헬렌 켈러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인도 영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8세 소녀 ‘미셀’.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소녀는 짐승과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 소녀를 포기할 수 없는 어머니는 마지막 선택으로 장애아를 치료하는 ‘사하이’ 선생을 부르며, 소녀는 그 덕분에 세상과 소통하게 된다. 잔잔한 감동을 주는 것은 물론 인도 문화권을 접할 수 있는 영화다.



중·고등학교 추천!

**통과 릴라: 그들만의 공간**

감독 제임스 최 등급 12세 관람가  
러닝타임 75분 개봉 1월 25일

160kg이라는 거구의 몸집 탓에 통보라는 놀림을 받는 소심한 ‘통’, 앞을 보지 못하지만 언제나 밝고 당당한 ‘릴리’. 사회의 편견 속에서 살아가는 두 사람의 인연은 세탁소에서 불량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각장애인 릴리를 통이 도와주면서 시작된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치유하는 과정을 담은 로맨스 영화인 만큼 사춘기 자녀와 보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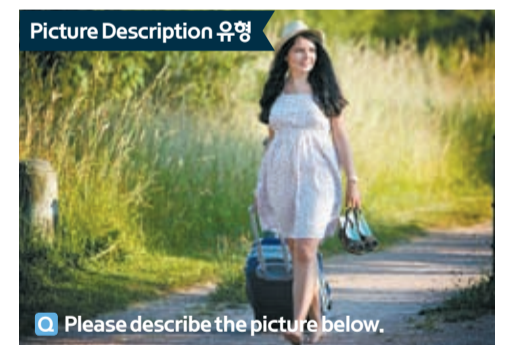
대학생 추천!

**더 킹**

감독 한재림 등급 15세 관람가  
러닝타임 134분 개봉 1월 18일

무소불위 권력 쟁취를 꿈꾸는 검사 박태수와 대한민국의 권력을 설계하고 계획하는 검사장 한강식, 권력 앞에서 순종적인 한강식의 오른팔 검사 양동철, 화려한 세계의 이면인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들개파 2인자 최두일까지 대한민국 권력의 추를 움직이는 핵심 인물들의 뒷모습을 다룬다. 뽀주기 수사, 언론 유착 등 요즘 대두되는 사회 문제들을 잘 풀고 있다는 평.

## 〈SPA 시험〉이렇게 준비하자



In this picture, a woman wearing a white dress is walking on a road. With her right hand, she is carrying her luggage and with her left hand, she is carrying her shoes. The woman is walking barefoot. One can assume that her shoes, which look like high heels, are hurting her feet. This shows that the woman has been walking for a very long time. The woman seems to be traveling as she is carrying her luggage. She is surrounded by tall trees; thus, one can assume that she is traveling around the countryside.

### Opinion Question 유형

Many people nowadays enjoy traveling to different places. What was your most memorable trip? Where do you want to go in the future?

My most memorable trip was when I went to Cancun, Mexico with my family. For one week, we stayed at an enormous resort. The resort was connected to the beach, so we were able to spend a lot of time at the beach. During our time at the resort, we enjoyed a variety of food, ranging from Spanish food to Japanese food. This trip was very memorable because not only was the trip relaxing, but it also helped me create special memories with my family. In the future, I aspire to go on an adventurous trip. I yearn to go to places like Africa. In Africa, not only do I want to collect rare plants, but I also want to mingle with wild animals.

자료 제공 SLI 교육원(02-541-7219)







한반도를 지나 아시아, 중동, 남미에 이르는 현대건설의 일출 릴레이. 짙은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처럼 현대건설의 열정과 희망도 함께 솟아오릅니다.  
 Here are a collection of pictures of the sun coming up in Asia, the Middle East and South America.  
 Together with the red sun rising through dark dawn, our passion and hope is rising up.

**HYUNDAI E&C TODAY**  
<http://news.hdec.kr>  
**Vol.328**  
 2017/01/24/Tuesday



1 쿠웨이트 알주르 엘엔지 수입항 건설공사 2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3 사우디 타북-타바잘 380kV 송전선로 공사 4 카타르 국립 박물관 신축공사 5 칠레 차카오 교량 공사 6 신한울원자력 1·2호기 7 베네수엘라 푸에르토 라크루즈 정유공장 8 두바이 대관람차 공사 9 부산항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10 쿠웨이트 웨이크 자베르 코즈웨이 공사 11 제주신화역사공원 PLOTR 건설공사 12 스리랑카 콜롬보 킬시시티 프로젝트 13 UAE 사브 해상원유 및 가스처리 시설 공사

